

# 한양대학교 2012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2차

인문계

논

술

오후 (1)

수험번호 ( ) 응시번호 ( ) 성명 ( )

## 수험생 유의사항

1. 120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3. 수정 시 검정 볼펜으로 줄을 긋고 다시 쓰시오.
4. 답안지와 문제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5.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을 검정 볼펜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 4)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 <가>의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각 급훈을 분석·평가한 다음, <다>의 문제의식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급훈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설명하시오. (1,400자)

### <가>

프레임의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이다. 이 모두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에 프레임을 맞춰 사진을 찍을 것인가 고민하는 작가가 양쪽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 여기저기 갖다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동일한 장면을 대하고도 작가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것은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다. 우리는 마음의 창, 곧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하여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은 새롭게 접하는 사태마다 매번 새로운 관점을 마련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마치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프레임을 통해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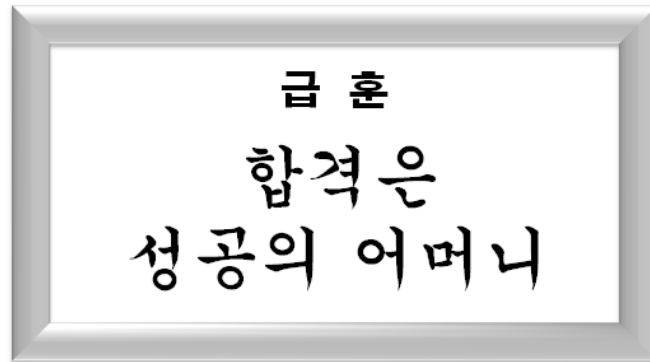
이러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 중의 하나가 언어이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하지만 언어 체계가 동일하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저마다 다른 종류의 담론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담론이란 동일한 언어 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예컨대 ‘자유’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이 단어는 자본가나 노동자에게나 동일한 언어 기호로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입장, 곧 프레임에 따라 전자에게는 ‘경영의 자유’를, 후자에게는 ‘노조 활동의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 즉 같은 언어도 어떤 담론적 실천을 거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가 사용된 의도와 맥락에 주목하면 그 프레임이 지니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은유적인 것이다. 하지만 은유는 우리의 말에 너무 밀접하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유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거나 망각해 버리기 쉽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아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친족 간이나 조직 사회에서 그 구성원의 관계를 표현하지만, 사실상 이는 인간관계를 공간에 비유한 것이다. “시간이 돈이다.”와 같은 격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우리는 자명한 상식처럼 여기지만, 시간이 이러한 것들로 비유되지 않았던 문화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 시대, 곧 자본주의 문화의 산물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이런 점에서 은유는 단순한 미사여구나 수사법의 차원에 불과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은유는 오히려 직설법 이상의 힘을 갖는다.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은유를 담론에 끌어들이면서 사실은 아무런 증명이나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유는 상당한 정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 주고, 사물을 어떻게 상상하는가에 영향을 미치며, 세계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의 힘은 기존의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저항의 힘으로 쓰일 수도 있다. 은유는 이전에 깨닫거나 예견치 못했던 유추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낙태를 ‘선택의 권리’ 쪽으로 은유를 하느냐 ‘생명의 권리’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은 사뭇 달라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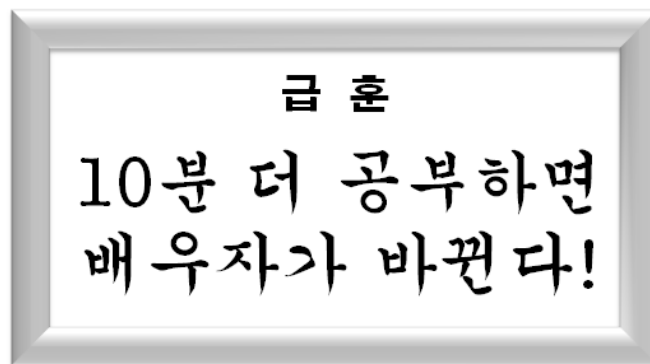
이처럼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사고와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힘을 둘러싸고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진다.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 즉 프레임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마련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놓고 서로 자신의 프레임을 문제들로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전개되는 것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 가령 쿠데타와 혁명, 소요 사태와 민주화 운동 등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러하다. 어떤 사람을 놓고 ‘테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자유의 전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불러온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명명하고, 진보 진영은 ‘점령’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것은 전자의 프레임으로 볼 때 ‘패전’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단지 언제 철수할 것인지에 관한 시간의 문제로 인식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프레임을 추출해 보면 그 뒤에 놓인 세계관이나 이념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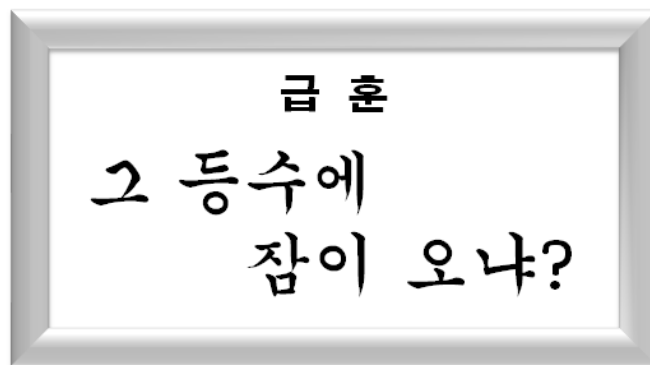
(1)



(2)



(3)



\* 이 사례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에 실재하는 급훈임.

#### <다>

한 연구자가 어느 날 벼룩의 점프력을 실험했다. 벼룩은 놀랍게도 자신의 키보다 몇 백 배가 넘는 30cm 정도까지 뛰어올랐다. 그는 한 무리의 벼룩을 실험용 용기에 집어넣고 15cm 높이에 투명한 유리 덮개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벼룩들은 쉴 새 없이 뛰어오르며 유리 덮개에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리가 잦아들자 유리 덮개를 열어보았다. 벼룩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벼룩이 뛰어오르는 높이가 유리 덮개 근처까지로 일정했다. 덮개에 머리를 부딪지 않기 위함이었다. 유리 덮개를 제거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그 이상을 뛰어오르지 않고 기존의 유리 덮개 높이 근처까지만 계속 일정하게 뛰는 것이었다.